

“南北훈풍 한강 물길 따라 불어오길”

김문수 경기도지사, 한강하구 뱃길 탐사 나서

경기도가 한강하구 골재 남북공동 채취 및 주운수로 활용, 한강변 철책선 제거, 통일대비 남북 연결 도로 및 교량건설, 조강포 등 한강 포구 개발, 하구 제방 보강 및 수중보 이전 설치 등 한강을 활용한 남북협력사업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이를 위한 준비로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17일 경기도지사로서는 처음으로 관계자 40여명과 함께 한강하구 뱃길 탐사에 나섰다. 김지사는 경기도 김포시 고촌면부터 북녘땅이 한눈에 들어오는 조강포까지 28km에 이르는 한강 하류지역 현장시찰을 실시했다.

뱃길탐사에는 강경구 김포시장, 건설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일산대교 건설사, 수자원기술사, 군관계자 등 관계자 40여명이 동행한 가운데 한강하구의 경제, 문화, 역사적 측면에서 현장 점검을 했다.

탐사단은 고촌면 신곡리 45분봉에서 어선 7척에 나눠 타고 고촌면

신곡리 수중보~장항습지~일산대교~하성면 전류리까지 16km를 이동한 뒤, 이어 11km 떨어진 조강포까지 버스를 이용해 한강 하류 일대를 세심히 살폈다.

이번 뱃길탐사에서 역점을 둔 부분은 한강하구 퇴적상향 및 한강제방 보강사업, 철책선 제거추진, 수중보 이전 등 주운수로 확보여건과 일산대교 신설에 따른 하상변동 상황을 살폈다.

이어 북한의 개포 땅을 불과 500여 미터 마주보고 있는 조강포의 복원 및 활용 가능성을 현장에서 점검했다.

침수피해 방지를 한강제방은 고촌면 신곡리~하성면 시암리 28.3km 구간을 보강한 뒤 10차로 규모로 도로를 건설하는 사업은 타당성 조사를 마치고 연말까지 기획 예산처, 건교부, 환경부 등과 협의에 들어간다.

특히 탄력을 받고 있는 한강철책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8월17일 한강 하구 일원에서 열린 한강하구 뱃길탐사에서 한강 수중보와 정황 습지를 살펴본 후 일산대교 방향으로 이동을 하며 현장 탐사를 하고 있다.

선 제거는 김포시 고촌면 수중보~경기도는 이번 남북정상회담과 일산대교간 10.6km 구간을 대상으로 경기도, 김포시, 17사단간 협의를 거쳐 올 12월 합의각서를 체결한 뒤 내년부터 단계별 철책철거 작업이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고객들에게 다양한 공연 서비스 제공

의정부예술의전당·노원문화예술회관 업무제휴

의정부예술의전당과 노원문화예술회관은 지난달 의정부예술의전당 회의실에서 양사의 임직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업무제휴 협약 조인식을 가졌다.

업무제휴 내용은 양사의 유료회원에 상호 동등한 혜택을 제공하고 등록된 유료회원이나 무료회원의 정보를 공유하여 e-메일이나 전화 마케팅 시 공연 정보를 동시에 전달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공연 홍보물 비치 시 서로의 공간을 제공하고 또한 홈페이지를 상호 연결하도록 함으로써 고객들이 다양한 공연을 골라볼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게 되었다.

이번에 업무제휴를 하게 된 것은 최근 우수축출처럼 대형공연장이 들어서면서 다른 공연장과의 경쟁 등으로 인해 고객들의 불만이 터지면서 추진하게 되었다.

의정부예술의전당과 노원문화예술회관은 서로 인접한 지리적 조건에서 각각의 마케팅 활동을 하면서 지역내 세분화된 고객

성향을 파악하기 곤란하여 관객 개발 및 광고 홍보에 있어 중복 투자되는 비효율적인 측면이 있어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 양사의 경영자들이 이의 해결책을 모색하고자 업무제휴 협약을 하게 되었다.

따라서 양사는 지역 공연 시장의 지역적 한계를 극복하여

두 기관의 정보의 시너지를 바탕으로 특화된 모델을 제시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이며, 또한 고객들에게도 다양한 정보를 공유하게 함으로써 보다 질 높은 수준의 공연을 저렴한 가격으로 관람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것으로 기대된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의정부예술의전당 이진배(왼쪽) 관장과 노원문화예술회관 최진용 관장이 업무제휴 협약서에 사인하고 악수를 하고 있다.

나라사랑 태극기 달기 캠페인 전개

새마을운동의정부지회, 평화의 광장에서

새마을운동의정부지회(지회장 박형국)는 8월14일 오전10시 새마을단체장 및 남녀 새마을지도자 15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의정부시청 앞 평화의광장에서 나라사랑 태극기 달기 캠페인을 전개했다.

제62주년 광복절을 맞아 국권회복을 경축하고 선열들의 숭고한 독립정신을 계승·발전시켜 국가발전 위한 국민적 역량을 하나로 결집시켜 나가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행사였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새마을지도자들은 의정부역, 시청, 의회, 정보도서관, 광흥시장 주차장 등에서 차량용태극기를 달아주며 광복절에 각 가정마다 태극기를 게양토록

촉박했다.

또한 새마을운동의정부지회는 시범지역 4개소(가능1,2,3,녹양동)를 선정, 태극기꽃이와 태극기를 직접 달아주기도 했다.

특히 신곡2동 상록아이파크아파트를 시범아파트로 지정, 662전 세대가 가정용태극기(300개 지원/아파트부녀회 자체구입 362개)를 보급 게양토록 해 애환삼을 드높이는 계기를 마련했다.

박형국 지회장은 “나라사랑물인 태극기를 전 가정에서 게양함으로써, 나라사랑하는 마음을 키우고자 이번 행사를 추진하게 됐다며, 앞으로 더욱 확대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새마을운동의정부지회는 8월14일 오전10시 새마을단체장 및 남녀 새마을지도자 15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의정부시청 앞 평화의광장에서 나라사랑 태극기 달기 캠페인을 전개했다.

여름독서교실 인기 最高

의정부어린이도서관 개관 후 첫 행사

의정부어린이도서관은 지난 5월 개관 후 처음으로 여름방학을 맞아 초등학교 3학년~5학년 학생 40명을 대상으로 2007여름독서교실을 운영하는 결과 학생 및 학부모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지난 8일부터 9일까지 4일간 어린이도서관에서는 어린이들이 책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독서능력을 키우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어린이들의 흥미를 유발하는데 기여했다.

특히 열두 띠 이야기, 미술간에 간 동시, 반가워요 역사속 위인들,

색 점토로 만드는 책속 주인공, 내가 새로 쓰는 이야기, 우리 종이 한지, 그림책과 애니메이션 같이 보기 등의 프로그램은 다양한 독후 활동을 통해 책과 친해지는 계기를 만들어 주는 기회가 되었다.

이번 여름독서교실에 참여한 민세영(호동초 5년)학생은 독후감이나 논술 때문에 부담스러워 책 읽기가 어려웠는데 도서관에서 재미있게 독서하는 법을 가르쳐줘서 즐겁다고 소감을 말했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의정부어린이도서관은 지난 5월 개관 후 처음으로 여름방학을 맞아 초등학교 3학년~5학년 학생 40명을 대상으로 2007여름독서교실을 운영하는 결과 학생 및 학부모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포토뉴스



제62주년 광복절 경축행사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8월15일 수원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열린 제62주년 광복절 경축행사에 참석해 만세삼창을 하고 있다.



경기미로 만든 태극기떡

8월15일 수원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열린 제62주년 광복절 경축행사에서 김문수 경기도지사, 양태홍 경기도

우리는 미래의 경제주체

의정부시, 중학생들에게 경제교육



의정부시는 여름방학을 맞아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경제교육을 위해 8월7일부터 8일까지 1박 2일 간의 일정으로 관내 중학생 40여명을 초청, 충남 청양 칠갑산 연수원에서 청소년 경제캠프 행사를 가졌다.

이번 경제캠프를 통해 돈과 경제에 대한 올바른 의미와 가치를 알고 경제관념에 대하여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경제체험의 장을 마련해 줌으로써 변화하는 세계경제 질서에 경쟁력을 확보하고 건전한 경제주체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데 기여했다.

한편 시는 처음으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경제에 대한 캠프를 실시함으로써 미래의 경제 주체인 청소년 개인의 경제마인드에 대한 지식의 폭을 넓히는 것은 물론, 나아가 우리 지역의 경제발전에 주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의정부정보도서관 교육센터 수강생 모집

의정부정보도서관은 다음 달부터 운영하는 하반기 교육센터의 수강생을 선착순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하반기의 운영강좌는 부모역할훈련, 나만의 책 만들기, 어린이 동화구연 등의 문화강좌와 영어, 일본어, 중국어 회화의 어학강좌, 포토샵·일러스트, 플래시·애니메이션 등 영상강좌로 총 22개 과정 395명의 수강생이 수강하게 된다.

수강을 신청하고자 하는 시민은 21일부터 26일까지 6일간 선착순 접수 하되며, 수강신청시 정보도서관 교육센터 홈페이지(edu.uilil.net)에 회원 가입후 신청할 수 있다.

강좌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정보도서관 교육센터 홈페이지(edu.uilil.net)의 공지사항을 참고하거나 전화로(828-4828)로 문의하면 된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제2회 전국해양스포츠제전 2연패 쾌거

경기도, 체육운동 저력 전국에 알리는 계기

경기도가 제2회 전국해양스포츠제전에 참가하여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영예의 종합우승을 차지했다.

이번 해양스포츠제전은 해양수산부에서 주최하고 강원도 삼척시 맹방·덕산해수욕장에서 8월10일부터 13일까지 4일 동안 개최됐다.

이번 제전은 해양스포츠 대회의 활성화를 통해 해양레포츠 산업을 육성하고, 국민적 관심을 제고하여 친 해양문화를 확산시키고자 개최한 대회로서 전국 16개시·도 및 일본에서 9개 종목(비치발리볼, 카누, 요트, 윈수영, 철인3종, 바다수영, 고무보트, 수상오토바이, 드래곤보트)에 3,071명이 참가했다.

경기도는 이번 제전에 8개종목 562명이 참가하여 금 8 은 6 동 8 개를 따내 종합점수 2,997점으로 준우승인 부산시를 176점차로 누르고 압도적인 승리를 거뒀다.

특히 폐막식을 앞두고 열린 비치발리볼 고등부 결승전에서는 안양평촌고등학교(목진영, 신태일)가 경북 현일고등학교를 물리치고 우승함으로써 대회 마지막까지 도의 위상을 더 높인 계기가 되었다.

이번 해양제전에서 우승으로 경기체육은 전국체전에서 뿐만 아니라 모든 체육 분야에서 체육운동 및 선진경기의 위상을 드높이는 계기를 마련뿐 아니라 해양레포츠 산업을 민선4기 도정 주요 역점사업으로 추진 중인 김문수 지사의 시책을 더욱 탄력 있게 뒷받침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

경기도는 내년에 전라남도 목포시에서 개최되는 제3회 전국해양스포츠제전에서도 경기도 선수들이 좋은 성적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제2회 전국해양스포츠제전에서 종합우승을 차지한 경기도 권혁은 해양수산부 장관이 우승트로피를 받은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미숙의 전통춤 이야기 13 동래고무(東萊鼓舞)

부산시 동래구에 전승되는 북춤

동래고무(東萊鼓舞)는 1993년 12월28일 부산시 무형문화재 제10호로 지정, 보존되고 있는 춤이다. 동래고무는 부산시 동래구에 전승되는 북춤이다. 고려 전기 궁중악을 관장했던 교방청(敎坊廳)의 기생들에 의해 행해졌던 향악정제(鄕樂正才)인 무고(舞鼓)가 동래감영의 교방으로 전래되면서 지역의 특성에 따라 추가되었던 북춤이다. 원래 교방청 또는 장악원에서 관장했던 정제(正才)는 궁중과 마찬가지로 지방 관아에서도 추어졌으나, 변형된 형태로 현재 바다에 떠내려오는 뱃북으로 북을 만든 것이 북춤의 기원이 되었다고 한다.

동래고무는 중앙에 큰 북을 놓고 4명의 무용수가 영산회상곡인 장영선, 엄봉도리, 타령곡악에 맞추어 북을 치면서 춤을 추며, 다른 4명의 무용수가 지화자를 노래하면서 함께 어울려 춤을 춘다. 춤사위에는 머리사위·부림사위·맞춤사위·열살이·평사위·팔사위·상대무·복춤사위·팔자사위·인사태 등이 있다. 춤사위는 궁중의 영향을 받아 섬세하면서 단아한 편이고, 춤의 구성은 단조로우면서도 변화가 있고 화려한 것이 특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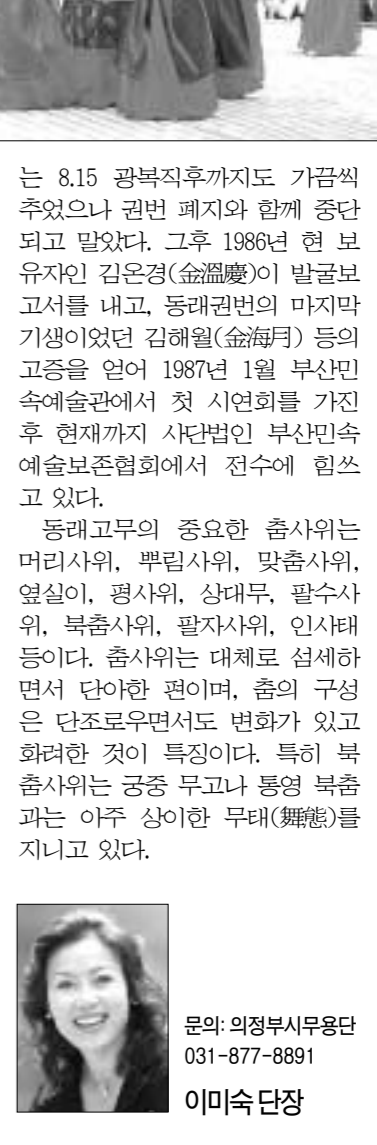
동래고무는 궁중의 정제(正才)도 아니고 순수민속춤도 아닌 중간 장르의 춤으로서 교방무의 한 유형이라는 점에서 가치가 크다.

현재 부산민속예술보존협회에서 전승·보존에 힘쓰고 있다.

동래고무는 고려 초기 관중 여악(女樂)을 관장했던 교방청(敎坊廳)의 기생들에 의해 행해졌던 향악정제(鄕樂正才)인 무고(舞鼓)가 동래감영의 교방으로 전래되면서 지역의 특성에 따라 추가되었던 북춤이다. 원래 교방청 또는 장악원에서 관장했던 정제(正才)는 궁중과 마찬가지로 지방 관아에서도 추어졌으나, 변형된 형태로 현재 바다에 떠내려오는 뱃북으로 북을 만든 것이 북춤의 기원이 되었다고 한다.

동래고무의 중앙에 큰 북을 놓고 4명의 무용수가 영산회상곡인 장영선, 엄봉도리, 타령곡악에 맞추어 북을 치면서 춤을 추며, 다른 4명의 무용수가 지화자를 노래하면서 함께 어울려 춤을 춘다. 춤사위에는 머리사위·부림사위·맞춤사위·열살이·평사위·팔사위·상대무·복춤사위·팔자사위·인사태 등이 있다. 춤사위는 궁중의 영향을 받아 섬세하면서 단아한 편이고, 춤의 구성은 단조로우면서도 변화가 있고 화려한 것이 특징이다. 특히 북춤사위는 궁중 무고나 통영 북춤과는 아주 상이한 무태(舞態)를 지니고 있다.

1905년 영문(營門)이 혁파되자 교방청도 폐지되었으나, 그곳에 예속되었던 기생들은 1915년경 기생조합을 형성하였고, 1920년대에 처음으로 권번(券番)이 창설되면서 동래관변, 봉래관변이 개설되었다. 1930년대에 들어서는 기녀들의 수가 늘고 다소간 장소에 대한 여건이 호전됨에 따라 처음에는 4고무(四鼓舞)였던 춤이 '지화자'를 가창하던 협무(協舞)의 기녀들도 함께 군무(郡舞)를 이루어 8고무(八鼓舞)의 동래고무가 형성되었다. 이 고무



문의: 의정부시무용단 031-877-8891 이미숙 단장